

지역 **소식 통**

정읍시 상하수도사업소

최고 등급 획득 쾌거

정읍시 상하수도사업소가 행정안전부의 2026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하수도 분야에서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획득하는 쾌거를 거뒀다. 전국 96곳 가운데 8곳만 이 등급을 올렸으며 전북에서는 정읍시가 유일하다.

시는 그동안 낡은 하수관을 정비하고 필요한 지역에 하수관을 새로 설치해 안정적 인 하수처리 기반을 넓혀왔다.

이를 통해 하수처리의 안정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더욱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힘써왔다.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운영 개선도 꾸준히 추진했다. 윤리와 인권을 중시하는 경영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기 위한 사업과 시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하수도 시설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 방식을 지속해서 개선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국가유공자 보훈

단체 복지지원사업 개강식

고창군이 12일 고창군 보훈회관에서 보훈단체 회원과 가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훈단체 복지지원사업 개강식'을 열고 본격적인 사업 운영에 들어갔다.

보훈단체 복지지원사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고령의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지역사회 내 복지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11월 4일까지 총 18회에 걸쳐 건강강좌(보건소), 숲 체험(국립고창치유숲), 보훈회관 집합교육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보훈회관을 거점으로 문화·식사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고령 유공자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복지 체감도를 끌어올리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국립정읍숲체원 접근 빨라진다

산림 활용 교육 · 휴양 · 숙박시설로 2029년 준공... 1.72km 왕복 2차로 진입도로 착공

정읍시가 국립정읍숲체원 자연휴양림을 편리하게 오갈 수 있도록 64억원을 들여 1.72km 길이의 진입도로를 개설한다.

북면 복흥리 산226-1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국립정읍숲체원 자연휴양림은 지난달 15일 자연휴양림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31.9ha 부지에 방문자센터와 강당, 식당, 교육동, 숙박동, 관리사무소 등 모두 15개 시설이 들어선다.

숲체원 조성에는 총 320억원이 투입되며,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9년까지다. 산림을 활용한 교육과 휴양,

숙박 기능을 갖춘 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시는 숲체원 운영에 따른 방문객과 교통량 증가에 대비해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한다. 기존 도로 구간을 포함해 총길이 1.72km, 폭 8m의 왕복 2차로 도로를 마련해 숲체원으로 오가는 길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진입도로가 완공되면 시민과 관광객이 숲체원을 한층 편리하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좁고 불편했던 주변 도로 여건도 개선돼 인근 주민들의 이동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시는 지난달 23일 공사를 시작했으며, 숲체원이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전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28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한다.

이학수 시장은 "진입도로가 완공되면 숲체원 방문객의 이동 편의와 안전성이 높아지고 인근 주민들의 교통환경 개선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숲체원이 정읍의 새로운 관광·휴양 명소로 자리 잡아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도로 등 필요한 시설을 차질 없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 서남권소아외래진료센터, 60초영상 공모

'우리 아이 지킨 소아의료를 시민의 시선으로' ... 내달 20일까지 접수 · 총 상금 590만원

정읍시가 야간과 휴일에도 아이를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게 된 지역 소아의료의 변화를 시민의 눈으로 담은 짧은 영상을 공모한다.

시는 오는 18일부터 9월 20일까지 '서남권 소아외래진료센터 및 어린이 전용병동 쇼츠(Shorts) 영상 공모전'을 연다. 정책 성과를 일방적으로 알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이 직접 체감한 변화를 영상으로 나누고 지역 소아의료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마련했다.

누구나 개인 또는 3명 이하의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영상에는 아이가 안심하고 진료·치료받는 모습, 소아외래진료센터와 어린이전용병동의 따뜻한 안전한 환경, 정읍시와 의료진에게 전하는 감사와 응원, 서남권 소아의료의 변화와 미래에 대한 희망 등을 자유롭게 담으면 된다.

응모작은 30초 이상 60초 미만의 세로형 영상으로 제작해야 한다. 화면



비율은 9대 16, 고화질(1080p FHD) 이상이어야 하며, 유튜브에서 지원할 파일 형식으로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영상에는 음성 설명이나 자막도 넣을 수 있으며, 자세한 제출 방법은 정읍시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전문가 심사를 거쳐 대상 1편과 최우수상 2편, 장려상 4편 등 모두 7편을 선정한다. 심사에서는 주제와의

연관성, 참신성, 완성도, 시민 공감도,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총 상금은 590만원이다. 수상작은 정읍시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소아의료 홍보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짧은 영상에 담긴 시민들의 경험과 진솔한 목소리가 지역 소아의료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따뜻한 시선과 참신한 생각이 담긴 작품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남권 소아외래진료센터와 어린이전용병동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외래진료를 제공하고, 이후 시간과 휴일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당직근무와 응급실 연계를 통해 진료 공백을 줄이고 있다. 어린이전용병동도 24시간 운영해 야간·휴일 진료와 어린이 입원치료 기반을 뒷받침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전북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2년 연속 수상

소규모 어가 직불금 지급 제외 사각지대 해소 · 전국 어항 재난발생시 사용료 감면망 구축 주제 발표

부안군은 제2회 전북특별자치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영예의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2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전주 왕의지빌에서 열린 이번 경진대회에서 김태욱 주무관은 '업종 변경 어업인의 소규모어가 직불금 지급제외 사각지대 해소' 사례

로 최우수상을, 나지혜 주무관은 '어촌·어항법 개정으로 전국 어항에 재난 발생 시 사용료 감면망 구축' 사례로 최우수상을 각각 수상하며 높은 관심과 평가를 받았다.

이번 대회는 도내 14개 시·군이 제출한 규제합리화 사례 중 1·2차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사례 7건을 발

표하고, 각 기관의 규제 합리화 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군은 지난해 제1회 대회에서 '양식장 형광선 야간조명 허용' 사례로 최우수상을 받은 데 이어 올해 역시 최우수상을 동시에 수상함으로써 2년 연속 수상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예산”

제5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출범... 60명 위원에 위촉장 수여

고창군이 지난 11일 군청 제5회의실에서 '제5기 고창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식 및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위촉식에서 공모와 추천을 통해 구성된 위원 총 6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위원회 운영을 이끌어갈 임원진을 선출했다.

제5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균형발전, 농촌활력, 문화관광, 복지환경 등 4개 분과로 구성되며 오는 2028년 6월 30일까지 2년 동안 활동하며, 주민 제안사업 심의 및 우선순위 결정,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을 통해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함께 진행된 역량강화 교육은

최승우 나라살림연구소 참여예산센터장이 강사로 나서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이해와 역할, 제안사업 심의 과정 등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주민참여예산 운영 절차와 위원들의 역할을 알기 쉽게 설명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주민참여예산은 군민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고 지역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소통과 협력의 제도다"며, "제5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군민과 행정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며, 더 나은 고창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복검랜드 플리마켓&귀신놀이터’ 성료

부안군, 청소년문화의집과 연계 체험 프로그램 운영

부안군은 여름방학을 맞아 부안복합커뮤니티센터 일원에서 운영한 '복검랜드 플리마켓&귀신놀이터'가 지역 주민과 어린이·청소년, 가족 단위 방문객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행사 첫날에는 주민이 직접 판매자로 참여하는 '복검랜드 플리마켓'을 운영해 중고 생활용품과 장난감, 도서, 의류, 공예품 등을 나누고 판매하는 자원순환형 장터를 선보였다.

단순한 판매 행사를 넘어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만나 소통하고 교류하는 장을 마련해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주

민 친화적 기능을 한층 강화했다. 이어 진행된 '복검랜드 귀신놀이터'는 복합커뮤니티센터 실내 공간을 활용한 몰입형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이 시설 곳곳을 이동하며 단서를 찾고 미션을 수행하도록 구성해 어린이와 청소년은 물론 가족 단위 방문객 300여명에게 색다른 여름 추억을 선사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부안군 청소년문화의집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해 의미를 더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소방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화재예방대책 추진

고창소방서(서장 시주형)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과 화재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창의용소방대연합회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를 방문했다.

이번 활동은 농촌지역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증가에 따라 언어와 문화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고창소방서와 의용소방대원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상 119 신고 방법과 외국인 통역서비스 이용 안내, 화재 발생 시 피난·대피요령 등을 교육했다. 특히, 영어, 베트남어, 태국어 등 6개 국어로 제작된 다국어 소방안전 리플릿을 활용해맞춤형 소방안전 교육을 진행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

